

박성현 LPGA 39년만에 신인 3관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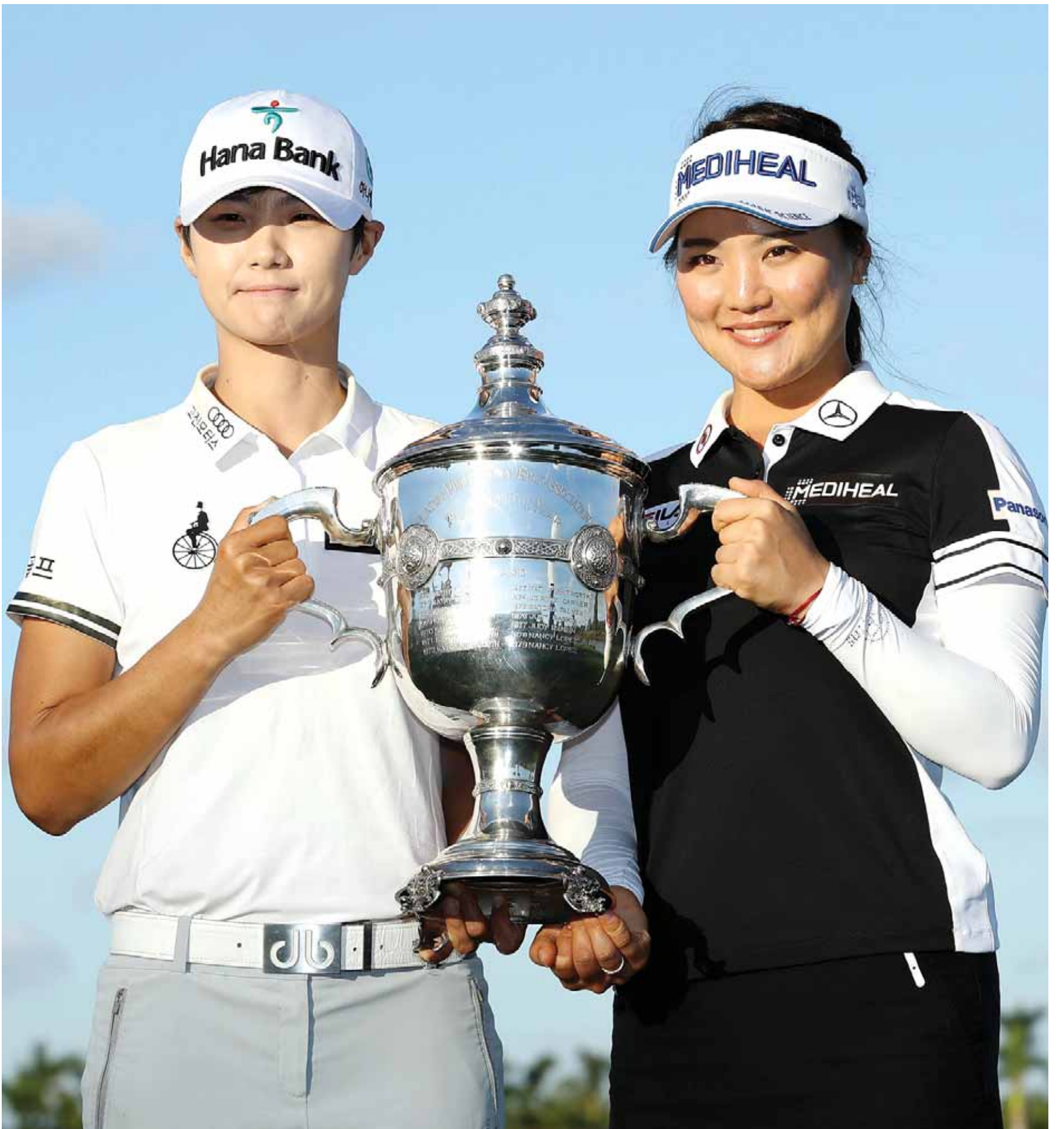
(신인상·올해의 선수·상금왕)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6위...상금왕 확정
토프슨 18번홀 60cm 퍼트 놓치며 우승 좌절
‘올해의 선수’ 유소연과 공동 수상 ‘기쁨 두배’

‘슈퍼 루키’ 박성현 신인상·상금왕·올해의 선수 3관왕



- 출생 1993년 9월21일
- 신장/체중 171cm/60kg
- 학력 현일고 - 한국외국어대 재학중
- 소속 세마스포츠마케팅
- 주요 경력
 - 2012년 KLPGA 입회
 - 2015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공동2위
 - 2016년 LPGATour 에비앙 챔피언십 공동2위
 - 2017년 LPGATour HSBC 위민스 챔피언십 3위
 - LPGA투어 볼빅 챔피언십 공동2위
 - US여자오픈 우승
 - LPGA투어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 우승
 - LPGA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2위
 - LPGA투어 진출 첫 시즌에 세계 랭킹 1위
 - LPGA투어 신인상·상금왕·올해의 선수 3관왕(39년 만의 기록)



올해의 선수상 공동수상자 박성현(왼쪽)과 유소연이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슈퍼 루키’ 박성현(24)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3관왕에 올랐다. 박성현은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6천570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2017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250만 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의 성적을 낸 박성현은 공동 6위로 대회를 마쳤다. 시즌 최종전에서 우승을 놓쳤으나 직전까지 상금 선두를 달리던 박성현은 상금 2위 유소연(27)이 5언더파 283타, 공동 30위에 그치면서 상금왕 수성이 확정됐다. 또 렉시 토프슨(미국)이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짧은 60cm 파 퍼트를 놓친 덕에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도 유소연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미 올해 신인상을 받은 박성현은 1978년 낸시 로페스(미국) 이후 39년 만에 신인상, 올해의 선수, 상금왕 등 3관왕을 달성한 선수가 됐다. 투어 통산 두 번째다. 2009년 신지애(29)가 신인으로 상금왕에 올랐지만, 올해의 선수는 차지하지 못했다. 박성현은 평균 타수 1위까지 차지했다. 1978년 로페스의 ‘4관왕 신화’를 재연할 수 있었으나 이 부문 1위는 토프슨에게 돌아갔다. 다만 주요 4개 부문 가운데 신인상을 제

외하고 상금,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로 3관왕을 이룬 사례는 2014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 2011년 정아니(대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로레나 오조아(멕시코) 등이 달성한 사례가 있다. 한국 선수가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에 선정된 것은 2013년 박인비(29) 이후 올해 박성현과 유소연이 4년 만이다. 이 대회 우승은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한 에리아 주타누간(태국)이 차지했다. 토프슨과 제시카 코르다(미국)가 1타 차 공동 2위에 올랐다. 극적인 승부였다. 12언더파로 먼저 경기를 마친 박성현은 이미 신인상에 이어 상금왕까지 확정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단독 선두를 달리던 토프슨이 그 대로 우승하면 올해의 선수가 토프슨에게 돌아갈 판이었다. 15언더파였던 토프슨은 마지막 18번 홀에서 약 60cm 파 퍼트를 남겼으나 긴장한 탓에 이것이 홀을 맞고 나갔고 결국 1타를 잃어 14언더파가 됐다. 이미 경기를 마친 코르다와 동타가 됐다. 마지막 조에서 경기한 주타누간이 17번 홀(파5) 버디로 14언더파 대열에 합류했고, 기세가 오른 주타누간이 마지막 홀에서도 버디를 잡아내며 짜릿한 역전 우승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4관왕 로페스급 성적 굉장한 일... 스스로 칭찬해”

“올해의 선수’ 수상 소식에 얼떨떨...만족스러운 한해”

박성현 소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그룹투어챔피언십에서 2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리다 아쉽게 우승을 놓친 박성현은 경기 후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19일(현지시간) 최종 4라운드 끝나고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티뷰론 골프클럽에서 연합뉴스 특파원을 만난 박성현은 인터뷰 내내 “아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박성현은 이내 환한 웃음을 되찾았다. 외로운 미국 생활을 달래려고 입양한 애견 ‘아토’가 인터뷰 직후 그에게 달려오자 긴장을 풀고 아토를 쓰다듬으며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잠시 뒤 박성현에게 경사가 하나 더 생겼다. 라이벌 렉시 토프슨(미국)이 마지막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우승에 실패하자,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던 ‘올해의 선수상’도 유소연과 공동으로 수상하게 된 것이다. 박성현은 기자회견에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올해의 선수상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데, 공동으로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옆에서 말해줬다”면서 “(수상) 결정이 났을 때는 굉장히 얼떨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타이틀을 하나 더 얻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면서 “극적으로 이 상을 받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현은 또 지난 1978년 신인으로 4관왕에 오른 낸시 로페스에 버금가는 성적을 낸 데 대한 소감을 묻자 “굉장히 영광스럽다. 대단한 분과 같은 길을 걷게 된 것은 내 선수 인생에서 굉장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굉장한 일”이라는 것이 어울리는 듯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 누가 가장 생각나는지는 질문에 “가족들”이라고 답했다. 특히 가족 중에서도 조모가 가장 보고 싶은 듯했다. 그는 “국내에 있는 할머니께서도 새벽까지 TV를 보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 아쉽다”고 말했다. 박성현은 화려했던 첫 시즌을 마치는 소감을 묻자 만감이 교차하는 듯 “아”하고 감탄사부터 내뱉었다. 이어 “정말 숨 가쁘게 1년을 달려온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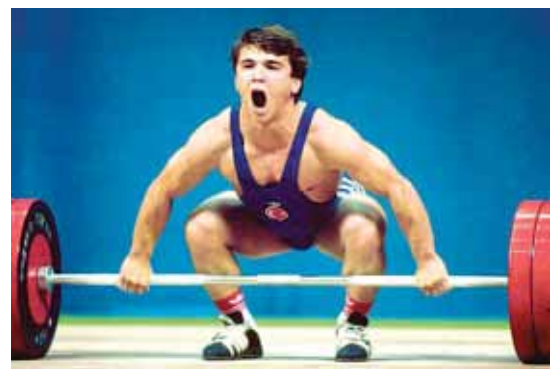


박성현 선수의 어린 시절 모습. /연합뉴스

같다”면서 “우승하고도 여유가 없었고 다음 대회, 또 다음 대회, 이렇게 경기가 이어지다 보니 나한테 정년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현은 또 “1년을 뒤돌아보면 제 목표를 다 이뤘고 상금왕까지 했으니 만족스러운 한 해”라면서 “다만 아쉬운 부분이 많았기에 내년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저한테 잘했다고 (스스로) 말해주고 싶다”며 스스로 자신을 격려했다. 올 시즌 가장 아쉬웠던 일을 묻자 한참을 생각하더니 “방금 끝나서 그런지 이번 대회”라고 했다. /연합뉴스

“박성현 스윙 세계 최고” 美 골프채널 해설자 극찬

‘세계 최고 스윙의 소유자는 박성현이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의 해설자 브랜들 챔블리가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한 차례 우승 경력이 있는 챔블리는 “박성현은 장타자이면서 공을 똑바로 보내는 능력이 있다”며 “매우 공격적인 스타일도 마음에 든다”고 평가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스윙의 기술적 완벽함이나 우아한 정도가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칭찬했다. 챔블리는 또 박성현의 스윙 동작 사진을 올리면서 남자 선수들인 루이 우스트히즌(남아공), 리키 파울러(미국) 등과 비교해서도 박성현의 스윙에 더 높은 점수를 줬다. 박성현이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 올해의 선수, 상금왕, 신인상 등 3관왕에 오르면서 외국 전문가들의 박성현에 대한 칭찬이 줄을 잇고 있다. LPGA 투어는 최근 박성현을 집중 조명 동영상을 통해 박성현의 스윙을 벤호건에 비유하기도 했다. 1950년대 세계 골프계를 주름잡은 호건은 ‘모던 스윙의 창시자’ 또는 ‘가장 경이로운 스윙의 소유자’로 불렸으며 메이저 9승을 포함해 PGA 투어에서 64승을 거둔 선수다. /연합뉴스



‘몸무게의 3배’ 190kg 바벨 든 ‘작은 거인’ 쉐레이마눌루 타게

세계 역도의 역사를 바꾼 ‘세기의 역사(力士)’ 나입 쉐레이마눌루(타게)가 눈을 감았다. AFP와 터키 언론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쉐레이마눌루가 터키 이스탄불의 한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고 보도했다. 향년 50세다. 쉐레이마눌루는 2009년부터 간부 전에 시달렸고, 지난달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쉐레이마눌루의 몸 상태는 악화돼 결국 숨을 거뒀다. 쉐레이마눌루는 147cm의 작은 키였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도 선수다. 팬들은 그에게 ‘포켓 헤라클라스’란 별명을 선사했다. /연합뉴스

쉐레이마눌루는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터키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생애 첫 올림픽부터 강했다. 남자 60kg급에 출전한 쉐레이마눌루는 인상 152.5kg을 들었다. 역도 역사상 최초로 인상에서 자신의 몸무게 2.5배 이상을 들었다. 용상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몸무게 3배를 넘게 들 수 없다”는 통념까지도 깨다. 쉐레이마눌루는 190kg에 성공했다. 이전까지 용상에서 자신의 체급에 정확히 3배를 든 사례는 있었다. 그러나 3배를 초과한 건, 쉐레이마눌루가 처음이었다. 서울올림픽 용상에서 쉐레이마눌루는 자신의 몸무게 3.18배를 들었다. /연합뉴스